2021

두산연강예술상

DOOSAN

20
21

두산연강예술상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0년 두산그룹 초대회장 연강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제정한 두산연강예술상–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연강의 뜻을 이어
젊은 예술가들을 응원하기 위한 상입니다.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넓혀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자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2년여 동안 진행되는 지금,
우리 모두는 유례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술가 여러분에게는 더욱 혹독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분들께
이번 수상이 위로와 응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산의 오랜 철학이 담긴
두산연강예술상.
올해로 열 두번째 수상자와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DOOSAN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제정의 뜻

두산연강예술상은 두산그룹 창업의 초석을 다지고 인재양성에 힘써온 연강(蓮崗) 박두병 초대회장의 뜻을 이어 공연 • 미술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한 상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이 미래라고 생각하는 두산의 의지와 생각을 담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후보자 자격

공연 • 미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는 만 40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예술가

선정과정

심사위원 선정 → 후보 추천 및 심사 →
수상자 확정

상금 및 부상

공연부문

수상자 1명(팀)
상금 3천만 원
공연 제작 지원 (2023년 하반기)

미술부문

수상자 1명(팀)
상금 3천만 원
전시 지원 (2022년 하반기)

2021 제12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공연부문 **설유진**

심사위원 김미도 (연극평론가)
윤한솔 (연출가)
이경미 (연극평론가)

미술부문 **업체 eobchae**

심사위원 김성은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김지연 (d/p 디렉터)
김해주 (아트선재센터 부관장)

설유진

극작가, 연출가
907 대표
한양대학교 유럽언어문화학부 독일어권언어문화전공 졸업

작, 연출
2021 〈홍평국전〉
2020 〈제4의 벽〉, 〈처음이야〉, 〈어슬렁〉
2019 〈9월〉, 〈907 단막극장_ 사과나무, 나 여기 바닥에 있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홍계월전〉
2018 〈나의 사랑하는 너〉, 〈9월〉, 〈나 여기 바닥에 있어〉
2017 〈초인종〉, 〈얼굴〉, 〈운동장에서〉
2016 〈코끼리무덤〉, 〈목격형연극 벽〉, 〈초인종〉

연출
2020 〈맥거핀〉, 〈미국연극/서울합창〉
2019 〈레몬 사이다 썸머 클린샷〉
〈너에게〉, 〈마르지 않는 분명한 묘연한〉
2018 〈누구의 꽃밭〉

극작
2015 〈씨름〉

2021 〈홍평국전〉 @This Is Not a Church (구 명성교회)

2020 〈미국연극/서울합창〉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2020 〈어슬렁〉 @신촌극장

2020 〈제4의 벽〉 @국립극단 소극장 판

2019 〈9월〉 @아트스탠드

2019 〈너에게〉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2017 〈초인종〉 @CKL스테이지

공연부문 심사평

이제 연극의 무대는 단순히 이야기가 담긴 박스(box)가 아니라 배우에 의해, 특히 그의 몸과 소리에 의해 그리고 음악과 조명의 상호관계 맺음 속에서 어떻게 분할되고 통합되는가에 따라 그 잠재성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공간이다. 오늘날 연출가가 수행하는 미학의 차별성 또한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가 어떤 주제 혹은 이야기를 인간과 세상에 대한 화두로 삼는가는 여전히 주목할 부분이다.
그러나 그가 이 이야기를 관객과 공유하는 방법의 문제, 즉 무대 위의 각 매체들 하나하나에서 이야기에 상응하는 질감과 리듬을 찾아내고, 이를 관객이 마주한 무대라는 공간 안에서 감각적으로 혹은 입체적으로 구현해내는 방식은 우리가 특정 연출가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근거가 아닌가 싶다.
그는 배우와 음악, 조명, 오브제 등을 단순히 하나의 희곡의 언어를 전달하는 기호로 소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에게 부여된 관습적 틀을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툭툭 건드려 보면서,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파동으로 무대를 공감각적 공간으로 새롭게 재구성하기도 한다.

이것은 현재 극작과 각색, 연출의 전 영역을 활발하게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는 설유진의 연극을 이루는 바탕이기도 하다. 그의 연극은 작품이 공연되는 극장의 기존 흔적을 가능한 한 지우고 비워낸 뒤, 배우에서 소리, 빛, 오브제를 그만의 방식으로 전혀 새롭게 다시 배치한다. 〈9월〉(2019)에서는 바닥에 그려진 두 개의 흰색 선과 주변에 배치된 몇 개의 의자로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고 스치듯 머물렀다 떠나는 기차역의 열린 공간성과 일시적 리듬을 담아냈다. 〈너에게〉(2019)에서는 무대를 최대한 넓게, 그리고 최대한 비운 상태에서 부분부분 조명을 적절히 가미해 극장을 하나의 자궁처럼 만들었고, 〈레몬 사이다 썸머 크린샷〉(2019)에서는 극장 자체를 농구경기장으로 만들었다. 〈제4의 벽〉(2020)과 〈홍평국전〉(2021)에서는 연극의 서사와 잇닿을 수 있는 흔적마저도 깨끗이 지워 철저한 무중립의 빈 공간으로 만들었다. 무대 한가운데 객석을 만들어 관객을 앉게한 뒤, 배우들은 공연 내내 그 바깥 주변을 빙둘러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지우고 다시 세워진 공간에서 배우의 움직임이나 발화, 빛과 소리는 매우 독특한 존재감을 갖는다. 특히 전사(戰士)나 농구선수 등 그 어떤 역할을 수행하든지 간에 배우들의 모든 말과 움직임은 그들끼리의 극중 대화를 넘어서서 그 공간에 함께 존재하는 관객을 향한 말걸기가 되면서 극장 밖 세상에 대한 새로운 상생과 연대로

관객을 초대한다.
하지만 이 모든 공간의 언어들은 오로지 설유진이란 한 연출가의 개인적 착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설유진은 연출로서 희곡 혹은 대본을 들고 무대를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배우들에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거듭 질문하면서 그들로부터 얻은 답으로 자신의 틀을 계속해서 수정해나간다. 그로 인해 연습의 과정은 때때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지루해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과정이 연출에게는 연출이 배우를 비롯한 여러 스태프들과 함께 그들 각각이 품고 있는 언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 주체적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매우 생산적인 시간이다. 설유진의 연극을 보고 극장문을 나설 때, 그 무대에 섰던 배우들이 혹은 어떤 소리, 혹은 어떤 빛이 유난히 지워지지 않고 내내 기억되곤 하는 것도 결국 이 때문이다.

특히 올해 공연한 〈홍평국전〉은 설유진 자신이 지향하는 연극의 가치와 양식에 잘 들어맞는 작품을 골라 창의적으로 각색하고, 무대를 한정된 공간 너머의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탁월한 감각을 보여준 주목할 공연이다.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장을 하고 전쟁영웅으로 살아가는 홍평국이라는 인물과 주변의 남성인물들까지 여성배우들이 연기하는 설정은, 진부한 젠더 관념을 통렬히 깨부순다. 황순미, 김보은 라소영 등 여섯 배우들의 젠더중립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홍계월/홍평국의 주체적 삶이 극장의 공간과 시간 안에 종횡으로, 수직으로, 수평으로 기입된다. 교회 안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운 다양한 질감의 조명과 음악, 무엇보다 극장 창문을 통해 극장 안으로 하얗게 쏟아지는 햇빛 또한 그 특유의 물질성으로 기여한다.

열악한 창작조건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내내 쉬지 않고 극장 공간을 두드려 찾아낸 설유진의 언어들이 5년, 10년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궁금하다. 그의 행보들이 유의미한 뿌리를 내려 한국 연극 전반에 의미있는 동력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심사위원 **김미도 윤한솔 이경미**

업체 eobchae

황휘
한국예술종합학교 멀티미디어영상과 전문사 재학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김나희
뉴욕시립대학교 헌터 대학 Integrated Media Arts 석사 과정 재학
서울대학교 인지과학 협동과정 석사 수료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오천석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사진 왼쪽부터 황휘, 김나희, 오천석)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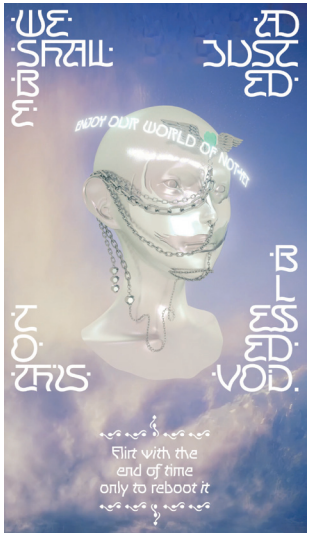
2019 *업체 eobchae x 류성실*, <CHERRY-GO-ROUND>,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2017 *〈(故) 이 괴롬 풀 에디션〉*, 공간사일삼, 서울
〈I.WILL.SEOUL.YOU 얼티밋 프로모션〉,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

단체전

2020 *〈나, 그리고 그 밖의 것들〉*, 하이트컬렉션, 서울
〈현실 이상〉,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내가 사는 피드〉, 아르코미술관, 서울
〈새일꾼 1948-2020〉, 일민미술관, 서울
〈아티스트로 살아남기〉, 세화미술관, 서울
2018 *〈뉴스, 리플리에게〉*, 북서울시립미술관, 서울
〈CAVA LIFE layers x RYSE Hotel〉, RYSE 호텔, 서울
업체 eobchae x 류성실, 〈미러의미러의미러〉, 합정지구, 서울
〈Lapses 1st Screening〉, 오시선, 서울
〈Lapses 3rd Screening〉, 플랫폼엘, 서울

CHERRY-GO-ROUND still

nahee.app run daddy app still



The Decider's Song still

The Decider's Chamber Cover

미술부문 심사평

올해 두산연강예술상 미술부문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 명의 심사위원이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세 작가씩을 추천하였다. 추천된 아홉 명의 후보는 하나의 경향으로 묶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매체, 형식, 주제로 꾸준하게 작업하고 있는 작가들이다. 다원화된 동시대 미술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기에는 추동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팬데믹 시대에 모두가 겪고 있는 큰 변화와 어려움을 미술계 역시 헤쳐 나가야 하는 가운데에서도, 아홉 명의 작가들이 보여 주고 있는 예술적 탐구의 집중과 지속적인 성취는 매우 고무적이라 느껴졌다.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난상 토론에서 개별 작가들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다른 의견이 맞서기도 하고, 결정하는 데 망설여지는 대목에서는 열띤 토의가 벌어지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수상자 선정을 위해 좁힌 방향은 두 가지다. 먼저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으로 갖게 되는 신작 창작의 기회가 큰 도약의 계기가 되고, 그 전시가 어떤 모습일지 쉽게 그려지지 않아 그만큼 기대가 되는 작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열두 번째를 맞는 두산연강예술상이 여타 시상 제도와 차별화되며 쌓아 온 고유한 성격에 더해 시의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고 볼 때, 현재의 감염병 상황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온라인', 대안적인 플랫폼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형태이자 체화된 거주지로서의 온라인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긴 시간 심사 끝에 수상자로 결정된 업체eobchae는 김나희, 오천석, 황휘 3인으로 구성된 콜렉티브다. 네트워크 시스템, 코딩 • 프로그래밍, 유사현실 기술, 공간과 사운드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들은 공동의 작업에서 장기적인 타임라인으로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하는 힘을 발휘해 왔다. 스스로를 '오디오 비주얼 프로덕션'이라고 일컫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업체eobchae의 작업에서 가장 돋보이는 지점은 포스트-인터넷 시대의 프로덕션 방법론이다. '체리장' 류성실과 협업한 연작에서는 1인 미디어 방송이 캐릭터를 창조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설계에서 흥미로운 협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김나희의 캐릭터인 주인공이 인공수정을 거쳐 출산할 아이 '가지'를 함께 양육할 여러 명의 대디를 모집하는 레지던시 기획 역시 다양한 변이 프로젝트를 통해 일종의 공상과학적 유니버스를 유기적으로 건설해 오고 있다.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하여 대디를 모집하는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를 만들고, 먼 미래에 모두의 생식기관이 초연결되어 자궁과 정자가 통신망의 허브와 데이터 패킷으로 작동하는 중앙집권적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보안 튜토리얼을 작성하는가 하면, 계약 기간 동안 부모 역할을 수행할 대디에게 최적화된 운영 체제를 개발한다. 온라인 강의 포맷을 차용한 기초소양 학습 프로그램에서는 '가지'가 살아갈 미래의 정치 지형도를 시뮬레이션하여 오류를 발견하고 변수를 제어하는 법을 배우도록 한다. 이 같은 프로덕션을 통해 업체eobchae는 미래에 대한 공상과학의 세계관을 현재로 현실화하는 매체미학의 가능성을 확인시키며 기술과 사회에 대해 비평하는 예술가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한다.

작가들이 콜렉티브를 이뤄 작업하는 일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프로젝트의 설계와 추진에서 호기로움과 치밀함을 함께 보여주는 업체eobchae의 작업은 소셜 미디어 기술을 통한 생산과 소비를 일상의 유전자로 갖고 있는 작가들의 협업 체계가 어떻게 진화할지 기대하게 한다. 수상 전시까지의 시간 동안 한층 두터워진 차원의 세계를 고안해 내기 바란다.

심사위원 **김성은 김지연 김해주**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2010년-2021년)

공연부문

2021 설유진

2020 윤혜숙

2019 윤미현

2018 김정

2017 이연주

2016 구자혜

2015 이자람

2014 이경성

2013 성기웅

2012 김은성

2011 윤한솔

2010 김낙형

미술부문

2021 업체 eobchae

2020 김경태

2019 김주원

2018 이윤이

2017 권하윤

2016 김희천 박광수 이호인

2015 강정석 오민 유목연

2014 강동주 안정주 이윤성

2013 김민애 김영나 차재민

2012 김상돈 김지은 장지아

2011 박주연 이소정 이재이

2010 구동희 김시연 박미나

*2021년 현재까지 공연부문 12명, 미술부문 26명이 수상했습니다.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두산아트센터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urs

연강홀

1993년 두산 창업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연강(蓮崗) 박두병 회장의 생가터에 지은 연강홀. 2007년 리노베이션을 거치면서 620석 규모의 중극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Space111

두산 창립 111주년을 기념해 문을 연 Space111.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두산갤러리

2007년 서울에 개관해 비영리로 운영해온 두산갤러리.
200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 작가들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두산갤러리 뉴욕과 두산레지던시 뉴욕을 운영했습니다.

창작자 지원

DAC 아티스트

공연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선정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두산아트랩

공연, 미술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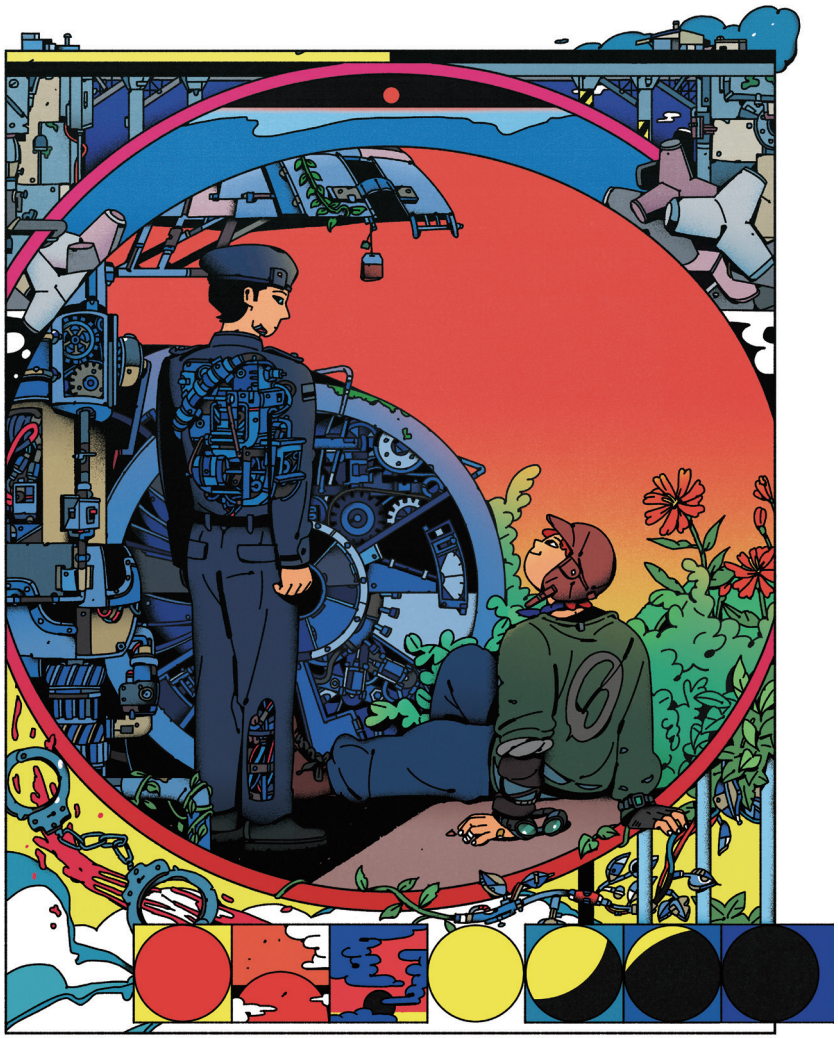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한국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신진 큐레이터를 발굴, 지원합니다.

두산연강예술상

인재양성에 힘써온 두산 초대회장 연강 박두병 선생의 뜻을 이어 2010년에 제정했으며, 미술과 공연 분야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만 40세 이하 예술가들을 지원합니다.

Space111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김 정 신작

태양

2021.10.05.화 ~ 10.23.토 화-금 19시30분 토-일 15시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작 **마에카와 토모히로** | 번역 **이홍이** | 연출 **김 정** | 출연 **서창호 임미정 윤재웅 김도완 이애린 이슬비 권정훈 김정화 김하람**
무대디자인 남경식 | 조명디자인 **신동선** | 의상디자인 **김우성** | 분장디자인 **백지영** | 음악 **채석진** | 사운드디자인 **지미세르** | 움직임 **이재영**
무대감독 **이욱수** | 홍보·티켓 **박서우** | 일러스트레이터 **김윤경** | 사진 **유경오** | 조연출 **박정호, 김신혜** | 제작프로듀서 **조하나**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GGAC 경기아트센터 GGAC 경기도국단

DOOSAN Gallery

Bumping

김경태

Kyoungtae Kim

2021.9.8.—10.16.

Surfaces

두산아트센터 2021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YONKANG Hall

HOPE: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뮤지컬 20.11.19-2.21
마마,돈크라이 뮤지컬 5.27-8.22
카포네 트릴로지 연극 9.14-11.21

Space 111

두산아트랩 공연 2021
오버더떼창: 문전본풀이 연극 3.25-3.27
마이뇨 - 뒷전거리편 음악 4.1-4.3
펭귄어패럴 radio edition ver.1 다원 5.13-5.15
밤에 먹는 무화과 연극 5.20-5.22
클래스 연극 6.17-6.19
뜻밖의 여자 - 탈 연습 연극 6.24-6.26
카르타고 연극 7.1-7.3

공동기획
양갈래머리와 아이엠에프 연극 4.10-4.25
산책하는 침략자 연극 7.31-8.15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태양 연극 10.5-10.23
바바리맨 뮤지컬 11.9-11.27

DAC Artist
김수정입니다 연극 12.7-12.25

DOOSAN Gallery

두산갤러리 서울
두산아트랩 전시 2021 1.13-2.20
이우성 개인전 3.3-3.31
Rain Reading 4.14-5.12
이형구 개인전 5.26-6.30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기획전 7.14-8.18
김경태 개인전 9.8-10.16
오종 개인전 11.10-12.18

두산갤러리 뉴욕
이윤이 개인전 1.14-2.13
오종 개인전 3.4-4.3
김주원 개인전 4.22-5.22

DOOSAN ART CENTER

교육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워크숍 3.1-12.31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워크숍 6.24-12.3

공모 프로그램
공연
DAC Artist 1.4-1.27
공동기획 5.10-6.9
두산아트랩 공연 6.14-7.14

미술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3.1-3.16
두산아트랩 전시 7.1-7.14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두산갤러리 02.708.5050 doosangallery.com

공연, 전시, 교육 및 공모 프로그램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지금의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은 영원할 수 없기에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야 하기에

두산은 지구의 무한한 바람과 수소에서 인류의 에너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

지금은 조금 낯선 에너지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DOOSAN

국내 최초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세계 최장 수명 수소연료전지 개발

두산은 무한한 바람과 수소를 활용한
풍력 및 수소연료전지(퓨얼셀)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로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

두산연강예술상